

내 여자친구는 왜 두쫘꾸를 좋아할까



장우일

두 쫘 꾸가 이어준 운명 같은 사랑.
서로를 이해하는 유쾌한 방법.

너무 공감돼서
울었어요.
- 함**

요즘 커플에게 꼭
필요해요.
- 김**

이 커플 정말 웃겨요.
- 성**

지혜의서가

1

낮선 공존의 시작

낮선 공존의 시작

두쫘쿠 스캔들

한유진의 휴대폰 화면은 밤새 새로운 알림으로 가득 찼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모든 플랫폼에서 같은 상품이 떠올랐다. 두바이 쫘득 쿠키. 정확히는 'Dubai Butter Cookie'라는 정식 이름이 있지만, 한국 네티즌들은 이미 두쫘쿠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었다. 버터의 풍미와 쫘득한 식감이 일품이라는 평가가 대세였고, 한유진은 그 평가에 완전히 빠져있었다.

"어제 봤던 그 쿠키 말이야, 정말 미쳤어. 버터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식감이 있다고?"

현우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고, 한유진의 흥분한 목소리는 배경음악처럼 흘러나왔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아? 한 박스에 얼마였지?"

"아, 그게 말이야.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렵대. 직구를 해야 하는데,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한 박스에 3만 원대야."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미묘했다.

"3만 원? 쿠키가?"

"응, 근데 이건 진짜 특별한 거야. 한정판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거든."

한유진은 휴대폰 화면을 현우에게 보였다. 수십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이 쿠키를 원했다. 모두가 이 쿠키를 먹어봤다고 자랑했다.

"유진아, 쿠키는 쿠키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마트에서 사는 쿠키랑 뭐가 다르다고?"

"다르지! 버터의 품질이 다르고,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아, 설명하기 어려운데, 일단 먹어봐야 알아. 진짜 다르다니까."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충돌이었다. 작지만 명확한 충돌. 한유진에게 이 쿠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트렌드였고, 경험이었고,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명이었다. 반면 현우에게 쿠키는 쿠키일 뿐이었다. 탄수화물과 지방의 조합이고, 3만 원이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었다.

한유진은 그 밤 온라인 쇼핑몰을 돌아다녔다. 두쫌쿠키를 파는 곳을 찾아다녔다. 한국 판매처가 있을 리 없었다. 직구 사이트들을 뒤졌다. 배송 기간은 2주에서 3주. 배송비는 생각보다 비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에게 이것을 꼭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자신이 자신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현우씨, 혹시 해외 구매 대행 써봤어?"

"아니. 왜?"

"두쫌쿠키를 빨리 받고 싶은데, 직구보다 대행이 더 빠를 것 같아."

현우는 침대에 앉아 있던 한유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이 쿠키를 구하려고 걱정했다.

"유진아, 그냥 마트 쿠키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이건 다른 거라니까!"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다. 자신과 한유진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한유진은 결국 구매 대행을 신청했다. 배송료를 포함해서 총 3만 5천 원. 현우는 그 과정을 지켜봤다. 말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했다. 그 침묵 속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한유진은 그것을 명확하게 느꼈다.

2주 후, 두쫌쿠키가 도착했다. 한유진은 박스를 뜯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예쁜 포장지에 싸인 쿠키들. 그것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맛도 훌륭했다. 버터의 풍미가 입안에서 녹아내렸고, 쫄쫄한 식감이 정확했다. 한유진은 사진을 찍었다.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조절하며. 그리고 그것을 SNS에 올렸다.

현우는 그 사진들을 봤다. 한유진의 행복한 표정. 그리고 댓글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모두가 부러워했다. 모두가 어디서 샀냐고 물었다. 한유진은 대행으로 구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링크를 공유했다.

그날 밤, 현우는 한유진에게 물었다.

"유진아, 혹시 이거 팔 거야?"

"어? 왜?"

"아니, 그냥... 이렇게 많으면 먹기도 힘들지 않을까?"

한유진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이건 먹으려고 산 거지, 팔려고 산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먹을 거야. 천천히."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꼴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극과 극인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서로에게 끌어당겼을까? 그 시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충돌도 없었을 텐데.

우연과 필연 사이

그것이 언제였는지 현우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그의 성향이었다. 작년 9월 15일 오후 2시 47분.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였다.

당시 현우는 팀 프로젝트를 위해 카페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앞에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여자였다. 그녀는 카페 한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음료를 쏟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고, 그녀는 "어? 어어어?"라는 기묘한 음성으로 반응했다. 현우는 그 순간 고개를 들었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현우가 물었을 때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그 웃음이 어떤 종류의 웃음이었는지 현우는 아직도 기억했다. 계산된 것이 아닌, 순수한 웃음. 그것이 현우를 사로잡은 첫 번째 순간이었다.

유진은 그날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기억했다. 자신의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를 구성하려고 카페에 앉아 있었고, 갑자기 떠오른 촬영 각도 때문에 휴대폰을 들었다 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음료를 쏟았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던 남자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어, 고마워요!"

유진이 말했을 때 그 남자는 침착하게 냅킨을 건넸다. 흐트러지지 않은 표정으로.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유진을 사로잡은 첫 번째 순간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엉뚱함을 당연하게 받아주는 느낌. 그것은 유진이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우연이었다. 같은 카페에서 또 마주쳤고, 그다음엔 같은 식당에서 만났다. 현우는 그것을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정도면 필연에 가깝다고 그는 생각했다. 유진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우주가 자신들을 자꾸만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혹시 저랑 커피 한 잔 할래요?"

현우가 물었을 때 유진은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커피를 마셨다. 그 커피 시간 동안 유진은 자신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아이디어들. 현우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마주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현우가 물었을 때 유진은 "당연하지! 이게 바로 요즘 감성이라니까요?"라고 답했다. 그리고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현우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단지 자신의 세계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다.

현우는 유진을 보면서 느꼈다. 이 사람은 자신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현우를 끌어당겼다. 자신의 삶에 없던 색깔이 유진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다. 현우를 보면서 느꼈다. 이 사람은 자신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안심이 되었다. 자신의 엉뚱함을 받아주는 든든한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느낌. 그것은 유진이 원하던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처음 몇 개월은 완벽했다. 서로의 다름이 매력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유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신기해했고, 유진은 현우의 안정적인 태도에 안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름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두쫘꾸라는 이름의 쿠키 때문에.

유진이 "현우씨, 이거 봤어요? 요즘 핫한 두쫘꾸인데, 진짜 맛있대요!"라고 말했을 때, 현우는 "쿠키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근데 왜 안 돼요?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효율성을 생각해봐야지."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깨달음은 불편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의미인데, 자신들은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유진의 감성적인 세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MBTI 미스터리

카페에 앉은 현우는 유진이 건넌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화면에는 MBTI 검사 결과가 떠 있었다. 유진의 ENFP와 자신의 ISTJ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다.

"봤어? 우리 완전 정반대네. 신기하지 않아?"

유진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녀는 이미 이 결과를 세 번은 본 것 같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MBTI 분석 사이트의 여러 탭이 열려 있었다.

"음. 통계적으로 보면 ENFP와 ISTJ의 궁합은 약 34퍼센트 정도다."

현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 유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 그게 뭐야. 34퍼센트면 낮은 거 아니야?"

유진의 밝은 표정이 잠깐 흐려졌다.

"아니다.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성격 차이로 인한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충돌? 우리가 충돌해?"

유진은 웃으며 물었지만, 그 웃음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두쫘쿠 사건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현우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의 화면에는 MBTI 분석 자료가 가득했다. 그는 유진을 이해하기 위해 밤새 자료를 모았다. ENFP의 특성, ISTJ와의 관계 패턴, 성격 차이 극복 방법 같은 것들이었다.

"ENFP는 감정 중심적이고 즉흥적이다. ISTJ는 논리 중심적이고 계획적이다. 이 차이가 일상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야?"

유진이 물었다. 그녀는 현우의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왜 자신들의 관계가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근데 이걸 알면 뭐가 달라져?"

유진의 질문에 현우는 잠깐 멈췄다. 그는 자신이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훈이었다.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떴다.

"현우 형, MBTI 분석 자료 보냈어요. ENFP와 ISTJ의 관계 패턴 분석 논문도 같이요. 유진씨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우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끄려다가 멈췄다. 지훈이가 보낸 자료는 무려 47개 파일이었다. 엑셀 시트, PDF 논문, 통계 자료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지훈이가 뭘 보냈어?"

유진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MBTI 분석 자료들이다."

"몇 개?"

"47개."

유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현우의 노력을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었다. 그저 상황이 우습다는 웃음이었다.

"47개? 우리 관계를 이해하려고 47개의 파일이 필요해?"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 현우씨, 우리 연애를 분석하려고?"

유진의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그것은 실망이었다.

현우는 유진의 표정을 봤다. 그녀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멀어 보였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유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뭘 데?"

"분석이 아니라 공감이야. MBTI 통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봐줬으면 좋겠어."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47개의 파일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이 유진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카페 밖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그들은 분석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었다.

"현우씨, 내일 시간 있어? 나 감성적인 피크닉을 계획했는데..."

유진의 제안이 떨어졌을 때, 현우는 자신의 달력을 확인하려는 손을 멈췄다. 그 대신 유진의 눈을 봤다. 그녀는 자신이 계획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이 효율적인지, 합리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감성적인 피크닉이 뭔데?"

현우가 물었다. 그의 질문에 유진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다.

"내일 와서 봐. 근데 한 가지 약속해줄래?"

"뭔데?"

"분석하지 말고, 그냥 즐겨줄래?"

감성 대 효율

유진은 새벽부터 준비했다. 공원의 한적한 언덕에 펼칠 피크닉을 위해 예쁜 보따리에 수제 샌드위치를 싸고, 트렌디한 카페에서 구한 따뜻한 라떼를 담았다. 계절 한정 디저트도 빼먹지 않았다. 현우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고르려고 애썼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순간 자체였다. 함께하는 시간의 감정, 그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다.

현우는 약속 시간 정각에 나타났다. 그는 유진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자마자 눈썹을 살짝 올렸다.

"뭐 이렇게 많이 챙겼어?"

"피크닉이잖아요. 분위기 있게 하려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공원까지의 거리, 날씨 예보, 돌아올 시간. 유진은 그런 그의 표정을 알아챘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오늘은 달랠 거라고 믿고 싶었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햇빛이 완벽했다. 유진이 보따리를 펼치자 현우는 시간을 확인했다.

"여기서 얼마나 있을 거야?"

"음... 2시간? 3시간?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면 안 돼요?"

"3시간이면 늦을 텐데. 저녁 약속이 있거든."

유진의 손이 멈췄다. 저녁 약속이라니. 그건 처음 듣는 말이었다.

"저녁에 뭐 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회의 준비.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지금 피크닉 중인데요?"

현우는 유진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마치 그 말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최대 1시간 30분이 적당할 것 같아. 그럼 충분하지 않아?"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들린 샌드위치가 무거워졌다. 새벽부터 준비한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다. 현우는 유진의 침묵을 눈치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다만 효율적인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먹어봐. 맛있잖아."

현우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물었다. 실제로 맛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문제였다. 맛있는 것도, 좋은 날씨도, 유진의 노력도 모두가 시간표 앞에서는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유진은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 인스타그램을 켜다. 피크닉 사진을 찍으려던 건 아니었다. 그냥 현우를 보지 않고 싶었다.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강태오의 카페 계정을 발견했다. 새로운 메뉴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계절 한정 복숭아 에스프레소. 유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다.

"사장님이 새 메뉴 냈네."

현우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시간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유진은 일어섰다.

"가죠."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괜찮아요. 사장님 카페에 들를 거거든."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유진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카페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카페 문을 열자 강태오가 웃으며 다가왔다.

"어? 유진님! 반가워요. 오늘 날씨 정말 좋던데요?"

"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벌써 왔어요? 피크닉 끝났나?"

유진은 대답 대신 메뉴판을 봤다. 강태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표정을 읽었고, 그 표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복숭아 에스프레소 한 잔 드릴까요? 유진님 취향일 것 같은데."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태오가 정성스럽게 음료를 만드는 동안, 유진은 깨달았다. 누군가는 자신의 취향을 시간표보다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을 효율성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현우씨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피크닉의 끝일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까.

2

오해의 지평선

오해의 지평선

트렌드 vs. 클래식

현우는 유진이 추천한 맛집 앞에서 멈춰 섰다. 간판에는 알 수 없는 신조어들이 가득했고, 인스타그램에서 본 듯한 파스텔 톤의 인테리어가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사람들은 줄을 서 있었다. 평일 오후 두 시인데도.

"여기가 진짜 핫플이야. 요즘 이 집 크림 파스타가 미쳤다니까?"

유진이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다. 새로운 경험 앞에서 항상 그랬다.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지?"

현우가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평균 대기 시간 35분. 그는 계산했다. 식사 시간 40분, 이동 시간 15분. 총 90분. 오후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다.

"왜? 시간 많잖아."

유진이 그의 표정을 읽었다.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저 골목 안에 미술랑 가이드에 실린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어. 대기 시간 없고, 음식 질도 검증되어 있고, 가성비도 훨씬 좋아."

"근데 나는 그 집이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톤은 위험했다. 현우는 알고 있었다.

"유진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합리적이야? 현우씨, 밥을 먹는 게 뭐예요? 그냥 영양 섭취? 시간 효율?"

유진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내가 가고 싶은 건 음식이 아니라 그 분위기, 그 경험이야. 친구들이 다 왔다고 했는데 나만 안 가본 게 싫고, 그 맛이 궁금하고, 여기서 사진도 찍고 싶은 거야. 그게 뭐가 비효율적이야?"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였다. 감정이라는 변수가 너무 많았다.

결국 그들은 줄을 섰다. 현우는 휴대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했고, 유진은 카페 사진을 찍기 위해 각도를 재고 있었다. 그 사이 거리는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멀어 보였다.

대기 중에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오였다.

"유진씨, 혹시 요즘 바빠요? 신제품 홍보 콘텐츠 촬영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카페에서 하면 배경도 좋고."

유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오! 좋아요. 언제요?"

"이번 주말 어때요? 오후 3시쯤?"

유진은 현우를 바라봤다. 그는 이미 휴대폰의 캘린더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번 주말은 아버지 뵈러 가기로 했는데?"

"아, 그건 다음 주말로 미루면 안 돼?"

"계획을 바꾸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나?"

현우의 말은 차분했지만, 유진은 그 속의 비난을 들었다. 그녀는 현우의 얼굴을 보지 않고 강태오에게 대답했다.

"네, 좋아요. 3시에 만나요."

통화를 끝낸 후 유진은 앞을 바라봤다. 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침묵은 자꾸만 커지고 있었다.

현우는 왜 자신의 선택을 항상 틀린 것처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진은 왜 자신의 말을 항상 비난으로 받아들이는지 현우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같은 줄에 서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강태오라는 또 다른 세계가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었다.

박지훈은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나 데이터 분석했는데 ENFP 여자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행동해. 통계로 보면..."

현우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다. 과연 데이터가 유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데이터 연애 컨설팅

현우는 사무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는 유진과의 대화 기록이 떠 있었다. 피크닉 약속을 어기고 효율성을 우선시했던 자신의 메시지들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만 막막한 기분이 드는 걸까.

"현우 형, 뭐 하세요?"

박지훈이 옆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에게 다가왔다. 현우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렇다고 물어보기는 조심스러웠다. 대신 그는 자신이 최근에 발견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다.

"아, 지훈아. 좋은 타이밍이네."

현우가 박지훈을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MBTI 궁합도 분석 자료가 떠 있었다. 현우는 이미 한 시간을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진이와 나의 성향 차이를 분석해봤어. ISTJ와 ENFP의 조합이야.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박지훈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이걸 그의 영역이었다. 데이터, 분석, 논리. 이런 것들이라면 자신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ISTJ와 ENFP는 갈등 확률이 약 78퍼센트 정도 됩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서 그런 데이터를?"

"연애 심리학 커뮤니티에서요. 성격 유형별 이별 통계를 정리한 자료가 있었는데, ISTJ 남성과 ENFP 여성의 관계 지속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박지훈은 마치 중요한 발견을 보고하는 개발자처럼 말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더니 몇 가지 수치를 더 보여주기 시작했다.

"특히 금전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초기 3개월 내에 발생할 확률이 82퍼센트고요, 그 갈등이 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확률은..."

"지훈아."

현우가 손을 들었다.

"그런 통계가 정말 도움이 될까?"

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현우의 질문이 예상 밖이었다. 보통 현우는 데이터를 좋아했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나요?"

"아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현우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기댔다.

"유진이는 통계가 아니야. 확률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야."

박지훈은 자신의 노트북을 들었다 놔다를 반복했다. 뭔가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우 형,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만약 통계적으로 관계가 어려운 조합이라면, 그에 맞춰서 미리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할까?"

현우가 박지훈을 바라봤다.

"감정을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을까?"

박지훈은 답변을 준비하려다 멈췄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 이건 그가 경험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프로그래밍 문제처럼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았다.

"그...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나도 모르겠어."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거야."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박지훈은 여전히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고, 현우는 모니터를 다시 켰다. 이번엔 MBTI 자료가 아니라 유진과의 대화 기록이었다. 피크닉 약속을 어겼던 그 날의 메시지들. 그리고 강태오의 카페로 향했던 유진의 마지막 말.

"현우 형,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현우는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데이터도 아니고, 통계도 아니고, 분석도 아닌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았다.

현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먼저 유진의 친구인 민서에게

물어봐야 할까. 유진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유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테니까.

민서의 일침

유진이 카페에 들어섰을 때, 민서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앞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놔다를 반복하던 민서는 유진을 보자마자 손을 들어 신호했다.

"야, 너 진짜 얼굴에 다 나와 있네. 또 현우 때문이야?"

유진은 한숨을 쉬며 민서 맞은편에 앉았다. 민서가 옆자리 의자를 밀어주며 가까워지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서야, 나 진짜 모르겠어. 현우는 왜 자꾸 내 취향을 분석하려고만 해? 마치 내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민서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 묻어 있는 초콜릿 가루를 보며 작게 웃음이 나왔다.

"두쫌쿠 때문이지? 들었어, 그 비싼 쿠키 사건."

"그게 아니라... 쿠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논리로 깨부수려고 해? 나는 그냥 그게 예쁘고 맛있고 트렌디하니까 좋은 거야. 뭐 이상해?"

민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유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상처가 어려 있었다.

"너 말이야, 너무 현우의 틀에 맞춰주려고 하지 마. 나 봤잖아, 너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너는 그냥 밝고 자유로운 애인데, 자꾸 자기 논리로 설명하려는 남자 때문에 위축되고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해는 상대가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거야. 너만 자꾸 맞춰주면 어떻게 돼? 너는 점점 작아져. 나 경험 많잖아."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씩씩해졌다. 유진은 민서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예전에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몇 달을 힘들어했던 친구. 그때 민서는 자신이 상대방을 계속 맞춰주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했었다.

"민서야, 너... 괜찮아?"

"나? 나는 괜찮지. 그냥 너를 보면서 예전 내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그래. 너는 현우 때문에 너를 잃지 말아야 해. 정말로."

민서는 유진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 손에는 예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데? 헤어져?"

"아니지. 그냥 현우에게 명확하게 말해. 너는 분석 대상이 아니라는 걸. 너는 그냥 너고, 너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민서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그 뒤에 붙을 말이 무엇인지.

바로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강태오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민서는 그 화면을 보고 눈썹을 살짝 올렸다.

"강태오?"

"응, 어제 카페에서 본 콘텐츠 아이디어 있다고 메시지 왔어. 한 번 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응."

유진은 휴대폰을 들었다 놔다를 반복했다. 민서는 유진의 손을 놓고 등을 밀었다.

"가봐. 어차피 현우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너를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유진은 민서의 말이 자꾸 맴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현우와 함께 있을 때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강태오와의 대화 속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공감의 가면

강태오의 카페 '트렌드 온'은 여느 날처럼 따뜻한 조명과 함께 조용한 오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유진은 카운터 옆 하이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고, 강태오는 그녀의 옆에서 커피를 내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유진님, 이번 콘텐츠 주제가 뭐예요?"

강태오가 물었다.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사장님! 요즘 감성 카페 투어 영상이 진짜 떠는데, 저도 한 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카페 입장에서 어떤 각도가 가장 예쁜지 알잖아요."

강태오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노트북을 자신의 쪽으로 당겨 화면을 함께 보기 시작했다. 유진이 모아둔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의견을 나누었다.

"이 톤은 너무 밝은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따뜻한 필터를 입히면 어떨까요?"

"오, 좋은데? 사장님 감각 진짜 좋으시네요."

유진이 감탄했다. 강태오는 그녀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유진의 어깨 근처에 닿았다가 물러났다. 그것은 의도적이면서도 우연처럼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유진님은 정말 감성이 풍부해요. 이런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강태오의 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유진은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현우와 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이 느껴졌다. 현우는 항상 '왜'를 물었다. 왜 이런 걸 좋아하냐고, 왜 돈을 이렇게 쓰냐고. 하지만 강태오는 그저 그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발전시켜 나갔다.

"사장님,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실제로 촬영을 한 번 해보고 싶은데..."

"물론이죠. 내일 오후 2시는 어때요?"

유진이 수락하기도 전에 강태오는 이미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적극성은 마치 유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현우였다. 그는 유진을 찾아온 것 같았다. 현우의 눈이 유진과 강태오가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했을 때, 그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다.

"유진아, 여기 있었네."

현우가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어? 현우씨! 뭐 하세요?"

유진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오는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섰다.

"콘텐츠 작업 도와주고 있었어요. 유진님의 감성을 살리려면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강태오가 말했다.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이 유진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암시 같은 것이.

현우는 유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밝았고, 눈빛은 생생했다. 자신과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표정이었다. 현우는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래. 잘하고 있네."

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뻣뻣함이 있었다. 유진은 그것을 감지했지만, 강태오와의 대화에 몰입한 나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사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내일 실제 촬영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유진이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이 강태오를 향했다. 강태오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키고 있었다.

"내일이요? 그럼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현우가 말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 현우씨는 바쁘지 않아요?"

그 질문 속에는 현우가 지난 피크닉에서 보여줬던 태도에 대한 미묘한 비꼬미 있었다. 현우는 그것을 느꼈다.

"시간을 내지."

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오를 바라봤다.

"사장님은 어때요? 현우씨도 함께 해도 괜찮아요?"

강태오가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자신감 있는 웃음이었다.

"물론이죠.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좋으니까요."

강태오의 말은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우를 자신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그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유진은 두 남자 사이의 묘한 긴장을 감지하지 못했다. 아니, 감지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현우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여주려 한다고 생각했고, 강태오가 친절하게 그를 환영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우는 달랐다. 그는 유진이 강태오와 함께 있을 때의 표정과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것은 자신과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자신의 가슴을 조여왔다.

"그럼 내일 2시에 봐요."

유진이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뭔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불안감, 질투심, 그리고 자신이 유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깨달음.

강태오는 유진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다.

"내일 촬영 때 이 카페의 새로운 음료도 선보일 거예요. 유진님 입맛에 맞게 특별히 만들어 볼게요."

"오, 기대돼요!"

유진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현우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유진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유진의 마음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유진은 내일의 촬영을 기대하며, 강태오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만족하며, 현우는 자신의 위치가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현우는 유진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지, 그것이 정말 유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렇게 현우는 다음 날의 만남을 앞두고, 자신이 준비해야 할 선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유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혹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점점 짓누르고 있었다.

3

균열과 마주서다

균열과 마주서다

사라진 열쇠

유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하나의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검은색 포장지에 깔끔하게 묶인 리본, 그리고 그 옆에 현우의 필체로 쓰인 메모 카드가 있었다.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상자를 집어 들었다. 무게감이 제법 있었다.

"뭐 하는 거야?"

현우는 주방에서 나왔다. 평소처럼 단정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이 준 선물이 유진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듯했다.

"선물? 왜 갑자기?"

유진이 물었다. 최근 며칠간 둘 사이의 공기는 어색했다. 피크닉 이후로 현우는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척했지만, 유진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강태오와의 시간이 자꾸만 떠올랐다.

"열어봐."

현우가 말했다. 유진은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다. 검은색 가죽에 금색 로고가 새겨진 명품 지갑이었다. 유진은 잠깐 침묵했다.

"어제 너 핸드백에서 지갑이 떨어져 나가는 걸 봤어. 그 낡은 지갑 말이야. 이건 훨씬 내구성이 좋고, 카드 수납 공간도 더 많아. 실용적이야."

현우가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마치 자신이 한 선택이 완벽하다고 믿는 듯했다.

유진의 손이 지갑을 들었다 놔다를 반복했다. 그 지갑은 분명 좋은 제품이었다. 비싼 것도 맞았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지갑이..."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응?"

"그 지갑이 내가 좋아하는 지갑이었어. 엄마가 사줬던 지갑이야. 기억 안 나?"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낡았잖아. 이게 훨씬 낫지 않아?"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야."

유진이 말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 지갑은 엄마가 내 스무 살 생일 때 사줬던 거야. 그 안에 엄마가 써준 편지도 들어있었고... 내가 처음 번 돈으로 산 립스틱도 그 지갑에 넣어뒀어. 그건 단순한 지갑이 아니라 내 추억이 담긴 거였어."

현우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어제 떨어뜨렸을 때 너는 뭐 했어? '이 기회에 새로운 걸로 바꿔. 더 효율적이지'라고 했잖아.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알아? 내 추억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유진의 눈가가 빨개졌다. 현우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했다.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 현우씨, 넌 날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효율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데이터로 분석하고, 통계로 계산하고, 논리로 판단하는 너의 방식으로 말이야."

유진이 지갑을 테이블에 내려놨다.

"근데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내 추억은 숫자로 계산될 수 없어. 그리고 난... 난 그런 식으로 대우받고 싶지 않아."

현우는 유진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실망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마치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듯한 감정 말이다.

"유진아, 미안해. 난 정말..."

"미안한 건 알겠어. 근데 미안이 해결하는 건 없어."

유진이 일어섰다. 그리고 현우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현우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차가움이 있었다.

"혹시 너... 강태오 오빠 생각해본 적 있어?"

유진의 입에서 나온 이 질문은 현우의 전신을 얼음처럼 식혔다. 강태오. 그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흔들리는 믿음

강태오의 카페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시간이었다. 유진은 새로운 콘텐츠 촬영을 위해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고, 강태오는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조명을 맞춰주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정확했고, 그의 말은 항상 유진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다.

"유진님, 이 각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감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구도예요."

유진은 그 말에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었다. 현우와 있을 때는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이었다. 강태오는 자신의 취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그저 존중했다. 그의 눈빛에는 비판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 순간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다. 유진과 강태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유진이 강태오 곁에서 보이는 밝음은 자신과 함께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눈빛이 살아 있었다. 웃음이 자유로웠다.

"아, 현우씨! 오셨어요?"

유진이 현우를 발견하고 인사했지만, 그 톤은 이전과 달랐다.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현우는 그것을 느꼈다. 자신이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에너지가 달라진 것을 명확히 감지했다.

"응, 촬영 중이었나?"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다. 강태오는 재빨리 한 발 물러섰다.

"네, 유진님이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 중이셔서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강태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현우에게는 마치 자신을 제외한 세계에서 유진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현우는 자신이 유진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했다. MBTI 분석, 통계, 데이터.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왜냐하면 강태오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유진을 봤다. 있는 그대로.

"촬영 끝났어? 우리 약속 있었잖아."

현우의 말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를 읽었다. 자신을 데려가려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자신이 강태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듯이.

"아직 좀 더 해야 돼. 사장님이 도와주고 계셨어."

유진의 대답은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는 현우에 대한 작은 저항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것을 느꼈고, 그 느낌이 자신의 가슴을 움아팠다.

강태오는 그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자신의 기회를 본 것 같았다. 그는 유진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유진님, 당신의 감성은 정말 특별해요. 그런 감성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해요."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었지만, 현우에게는 명백한 도발이었다. 강태오는 자신이 유진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현우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자신이 유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변하려고 했는지.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다. 강태오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초라해 보였다.

"유진아."

현우가 유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너 정말 이 사람이 나보다 너를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

유진은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무엇일지, 그것이 자신들의 관계를 어디로 끌고 갈지, 유진은 알 수 없었다. 그저 현우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만 보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았다.

폭발하는 감정

카페 문을 박차고 나온 현우는 거리의 소음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유진이 강태오와 함께 웃고 있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밝은 표정은 자신과 함께할 때는 본 적 없는 것이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놔다를 반복하며 현우는 결국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지금 시간 돼?"

박지훈은 현우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둘은 마주 앉자마자 현우가 입을 열었다.

"유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어? 그게 무슨..."

"강태오라는 카페 사장이야. 콘텐츠 촬영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 이상이 있어."

박지훈은 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었다. 자신이 본 현우는 항상 침착했는데, 지금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형, 혹시 유진씨가 현우님을 속이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빠진 거겠지."

현우는 자신의 MBTI 분석 자료를 펼쳐 보였다. 유진의 ENFP 특성, 새로운 자극에 대한 욕구, 감정적 공감의 필요성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거 봐. 유진이는 ENFP야. 이 타입은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갈망하는 성향이 있어. 내가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했으니까..."

박지훈은 현우의 자료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였다.

"아! 형, 그럼 통계가 있어요. ISTJ와 ENFP의 궁합은 사실 낮은 편인데, 성공 사례도 있거든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또..."

박지훈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검색을 시작했다.

"연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취미에 참여할 때 만족도가 23퍼센트 증가한다고 해요. 그럼 형도 유진씨의 콘텐츠 촬영에 더 자주 참여하면..."

"지훈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현우가 손을 들었다. 박지훈의 제안은 좋은 의도였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빗나가 있었다.

"내가 데이터로 유진이를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사람은 통계가 아니야.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현우의 말이 흐려졌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현우씨,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심각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 가는 길이야. 왜?"

"집에서 기다려. 우리 얘기 좀 하자."

전화가 끊겼다. 현우는 박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아, 고마워. 근데 난 가 봐야겠어."

박지훈은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통계는 안 되는 거네..."

한편 유진은 민서와 통화 중이었다.

"민서야, 내가 너무 심했나?"

"뭘 했는데?"

"현우씨한테 강태오 얘기를 꺼냈어. 그리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오는 내 얘기를 들어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왜 그걸 좋아하는지. 근데 현우씨는..."

"현우가 안 들어줘서?"

"아니야. 들어주는데... 분석하는 거야. 마치 내가 문제를 풀어야 할 수식인 것처럼."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유진아, 너 진짜 말을 안 했어? 현우한테 그게 싫다고?"

"말했어. 근데 안 바뀌었어. 그리고 내 지갑..."

유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지갑을 버리라고 했을 때의 현우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효율성만 봤다. 추억은 보지 못했다.

"유진아, 너 현우 만나러 가?"

"응.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너 자신을 잃지 마. 알겠지?"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자신이 누군지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우의 집 앞에 도착한 유진은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뭘 말해야 할까. 자신도 모르겠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 확실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현우가 문을 열었다.

"들어와."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리고 유진은 그 어두움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현우씨, 우리..."

"먼저 말할 게 있어."

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너는 누가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

공백의 시간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카톡 목록에는 현우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다. 지난 3일간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뭐 하고 있을까."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 방 안에 맴돌았다.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다. 평소처럼 현우에게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처음 깨달았다.

침대 옆 책상 위에는 어제 촬영한 두쫘쿠 사진들이 쌓여 있었다. 강태오가 도와준 사진들이었다. 조명, 앵글, 배경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댓글도 많이 달렸다. 좋아요도 늘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했을까.

유진은 일어나 앉았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현우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다. 무표정한 얼굴. 늘 그렇게 진지했다.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지갑 때문에 싸웠던 날, 현우의 눈빛이 얼마나 상처받아 보였는지. 자신이 강태오를 언급했을 때 현우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는지.

"아, 진짜."

유진은 휴대폰을 내팽개쳤다. 일어나서 거울을 봤다. 얼굴이 칙칙해 보였다.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싶지 않았다. 옷도 입기 싫었다. 그냥 누워만 있고 싶었다.

한편 현우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업무 문서가 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고만 있었다. 3일. 정확히 3일 4시간 17분. 유진과 말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현우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현우님, 회의 시간입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친구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알았어."

현우는 일어났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화장실에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도 칙칙해 보였다. 수염이 자라 있었다. 아침에 면도를 안 했다. 어제도, 그 전날도 안 했다.

회의는 한 시간을 넘겼다. 현우는 자신이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보고서를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끝나자마자 박지훈이 다가왔다.

"야, 진짜 뭐 하는 거야? 회의 중에 한 번도 안 봤잖아."

"미안해."

"미안해? 유진이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나한테 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해. 뭐 이 꼴이야. 면도도 안 하고."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연락 안 해?"

"....."

"진짜, 남자가 이 정도면 연락 먼저 해야지.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현우의 목소리는 작았다. 박지훈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유진이도 힘들 거야. 넌 어때? 밥도 먹어?"

"먹어."

거짓이었다. 현우는 지난 3일간 제대로 된 밥을 먹지 않았다. 편의점 김밥 하나, 라면 한 그릇. 그게 전부였다. 일상이 무의미해 보였다. 회사도, 집도,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였다.

유진은 저녁이 되자 침대에서 일어났다. 휴대폰을 들었다. 현우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다. 마지막 게시물은 2주 전이었다. 회사 야외 행사 사진. 현우는 뒤쪽에 서 있었다. 늘 그렇게 뒤에 있었다. 자신은 항상 앞에 있었다. 그게 맞는 건가 싶었다.

유진은 강태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촬영 가능해?"

답장이 빨리 왔다.

"물론이죠. 뭘 촬영할까요?"

유진은 한참을 생각했다. 뭘 촬영하고 싶은지 알 수 없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현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아무거나 괜찮아."

유진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현우의 프로필을 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메시지를 쓰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현우는 집에 가는 버스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흘러갔다.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현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거리의 카페들. 사람들. 웃음소리. 모든 것이 유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카페에서 유진은 강태오와 있었을 것이다. 현우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할수록 더 자주 떠올랐다. 유진의 밝은 웃음. 강태오의 부드러운 목소리. 둘이 나누는 대화. 모든 것이 현우를 제외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현우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유진도 지금 천장을 보고 있을까. 혼자 누워 있을까. 아니면 강태오와 함께 있을까.

현우는 휴대폰을 들었다. 유진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두쫂꾸 사진이었다. 조명이 정말 좋았다. 강태오가 도와준 것 같았다. 댓글에는 강태오의 이름이 태그되어 있었다.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들었다.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뭐라고 말할까.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일까.

현우는 휴대폰을 내팽개쳤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자신을 유진이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실망할 것이다.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더 싫어할 것이다.

하지만 현우는 이제 깨달았다. 유진이 없는 일상이 얼마나 건조하고 재미없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색했는지. 효율성과 논리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유진이었다.

유진도 같은 깨달음에 도달해 있었다. 강태오와 함께 있어도 뭔가 빠진 것 같았다. 자신의 취향을 이해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그것이 현우였다. 아니, 현우가 되어야 했다.

4일째 아침. 유진은 휴대폰을 들었다. 현우의 이름을 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지웠다. 다시 썼다. 또 지웠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현우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유진의 이름을 눌렀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먼저 연락할 자격이 있을까. 자신이 유진을 상처 주지 않았을까.

그 순간, 둘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니, 울리려고 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메시지가 왔다. 아니, 오려고 했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 둘 다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했다.

공백의 시간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공백 속에서 둘은 깨달았다.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제 둘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 누가 먼저 말을 걸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다시 만났을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현우는 휴대폰을 들었다.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일어났다. 옷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면도를 했다. 샤워를 했다. 깔끔하게 정장을 입었다.

유진도 침대에서 일어났다. 화장을 했다.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휴대폰을 들었다. 현우의 이름을 봤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현우씨,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는 휴대폰을 들었다. 메시지를 읽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리고 답장을 했다.

"응. 어디서?"

그 순간, 둘 다 깨달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공백의 시간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만났을 때 둘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서로를 마주할까. 그리고 그 만남에서 둘은 어떤 새로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까.

4

서로의 세계로

서로의 세계로

이해의 서곡

현우는 카페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색창에는 '두쫘쿠 레시피'가 떠 있었다.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다가 멈췄다. 다시 검색창을 지우고 '감성적 공감 방법'이라고 입력했다. 삭제했다. '유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쳤다.

화면 속 수십 개의 검색 결과가 떴지만, 현우는 어느 것도 클릭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 뿐이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패턴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유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지의 번호였다. 현우는 한 번 더 울리도록 놔뒀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현우씨, 저 유진이에요."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 5일간 그는 유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유진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 침묵의 시간들은 현우를 천천히 짓눌렀다.

"응, 유진아. 뭐 해?"

"저... 만나볼 수 있을까요?"

현우는 대답하기 전에 한 번 숨을 쉬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예전의 밝음도, 최근의 차가움도 아닌 다른 것. 마치 누군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응, 좋아. 어디서 만날래?"

"제가 자주 가는 공원 있잖아요. 거기 벤치에서요."

현우는 그 공원을 알고 있었다. 유진이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다. 그곳의 벚꽃, 그곳의 햇빛, 그곳의 분위기가 좋다고 유진이 말했었다. 현우는 그때 그것이 단순히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라는 의미라고만 생각했었다.

"알겠어. 30분 뒤에 만날까?"

"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났다. 현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검색창에 남아 있던 '유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공원으로 가는 길에 현우는 편의점에 들렀다. 유진이 좋아하는 카페 브랜드의 음료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 대신 그냥 물을 집었다. 그러다 다시 그 음료를 집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웃음을 지으며 바라봤다.

공원의 벤치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보고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그를 바라봤다. 현우도 마찬가지로였다. 몇 발자국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세상만큼 멀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경어체는 현우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유진아, 뭐 하는 거야. 왜 경어를..."

"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우는 벤치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다.

"이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우씨가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런데 저는 그걸 받아주지 못했어요."

"아니야, 유진아. 그게..."

"아니예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유진은 깊게 숨을 쉬었다.

"저는 현우씨가 저를 분석하는 게 싫었어요. 근데 지난 며칠, 혼자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현우씨는 그렇게라도 저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게 현우씨 방식이었구나."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도 노력할 거예요. 현우씨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리고 현우씨도...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다. 유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녀의 감정을 논리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응, 유진아. 나도 노력할 게."

현우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 공원의 햇빛이 더욱 따뜻해 보였다.

"그런데 혹시... 나한테 두쫂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유진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현우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다.

"진짜요?"

"응. 너가 좋아하는 거니까."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현우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알고 싶었다. 이제 그는 진심으로 알고 싶었다.

감성 가이드, 현우

현우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다. 화면에는 MBTI 성격 유형별 특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ENFP와 ISTJ의 궁합도를 분석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한 줄 한 줄을 읽어내려갔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함만 깊어졌다. 데이터는 유진이 왜 그렇게 두꼐꾸에 집착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통계는 그녀가 왜 효율성보다 분위기를 중시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박지훈이 옆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가왔다. 화면을 힐끗 봤다가 현우의 표정을 살폈다.

"현우 형, 뭐 하세요?"

"유진이를 이해하기 위해 뭔가를 찾고 있어."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뒤로 젖혔다. 지훈이는 화면 속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의 얼굴에 갑자기 밝은 표정이 떠올랐다.

"아, ENFP네요. 제가 이거 봤는데요. ENFP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감정적인 연결을 중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ISTJ와의 궁합은 상충이 있지만 서로 보완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현우는 지훈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유진은 새로운 경험을 원했다. 두꼐꾸는 단순한 쿠키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행하는 경험, 남들이 공유하는 순간,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현우는 그것을 효율성으로만 판단했다. 비싼 쿠키, 낭비, 불필요한 지출.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을 것이다.

"지훈아, 이거 봐. ENFP는 감정적 공감을 통해 신뢰를 쌓는다고 했어."

현우는 화면을 지훈이에게 가리켰다. 지훈이가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래서 ISTJ가 논리로만 접근하면 상대방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나와 있네요."

그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춰졌다. 유진이 자신에게 실망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자신은 계속 분석했다. 그녀의 행동을 데이터로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단이었다. 자신의 논리로 그녀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그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현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이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유진이 강태오와 함께 있을 때 보였던 밝은 표정이 떠올랐다. 그 미소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현우 형, 혹시 유진씨와 싸우셨어요?"

지훈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이 현우를 현실로 돌려놨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심하게."

"그럼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직접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훈이의 말이 단순했지만 정확했다. 현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다. 그는 유진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웠다. 다시 썼다. 또 지웠다.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뭘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유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현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어딘가 불안정했다.

"현우씨, 만날 수 있을까요?"

현우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분석이 아니라 듣기. 판단이 아니라 공감.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

"응, 만나자."

통화를 끝낸 후 현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MBTI 자료들도 화면에서 사라졌다. 그는 지훈이를 바라봤다.

"고마워, 지훈아."

지훈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입었다. 유진을 만나러 가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가 아닌 마음으로 그녀의 말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불안했다. 자신이 정말로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의 감성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오라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실의 발견, 유진

유진은 카페에서 나오며 현우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내일 시간 돼? 뭐 하고 싶어?'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며칠 전의 싸움 이후 처음으로 건네는 손길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놔다를 반복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아직도 현우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유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멈췄다. 현관 옆 선반 위에 놓인 지갑이 보였다. 엄마가 선물해주신 낡은 지갑. 현우가 새것으로 바꾸라며 건넸던 그 검은색 지갑은 아직도 가방 속에 들어있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거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유진에게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야, 뭐 해?"

"그냥 누워있어."

"현우 얘기 들었어? 어제 너한테 문자 보냈대잖아."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아, 진짜. 너 지금 뭐하는 거야. 현우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 어제 내가 봤는데 진짜 달라."

"뭐가 달라?"

"일단 너 지갑 얘기 있잖아. 그거 때문에 현우가 진짜 자책했어. 너한테 상처 준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효율성만 생각했다고. 너의 감정은 못 봤다고."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현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이 남자가 진짜 미친 듯이 너를 알고 노력하고 있어. 너 좋아하는 카페들 돌아다니고, 두쫌쿠 뭐 이런 거 찾아보고. 진짜 웃기더라. 그 현실적인 남자가."

유진은 웃음이 나왔다. 현우가 두쫌쿠를 찾아본다고?

"그리고 말이야, 너 최근에 올린 콘텐츠 봤대. 너 그 감성 있는 사진들 말이야. 현우가 그거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 이게 유진이가 보는 세상이구나' 이러더라. 진짜 눈물 나올 뻔했어."

전화를 끝낸 후 유진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현우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내일 괜찮아. 근데 내가 정할 수 있어?'

다음 날 오후, 유진은 현우를 한 카페 앞에서 만났다. 그곳은 그녀가 최근에 발견한 작은 감성 카페였다. 현우가 도착했을 때 유진은 이미 앉아있었다.

"안녕."

"응."

현우는 유진 맞은편에 앉았다. 며칠 만의 만남이었다. 둘 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여기 좋지? 내가 요즘 자주 오는 곳이야."

"응, 좋아. 분위기가 편하네."

유진은 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뭔가 달라 보였다. 민서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았다.

"현우, 나 지금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뭐?"

"너 요즘 뭐 하고 있어?"

현우는 잠깐 생각했다.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너가 왜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거."

유진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깨달았어. 내가 너를 분석하려고 했다는 거. 그게 공감이라 아니었다는 거. 너는 숫자가 아니고, 너는 너야. 그냥."

현우가 말을 이었다.

"어제 너 인스타그램 봤어. 너 올린 사진들. 그걸 보니까 아, 유진이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구나.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게 보였어. 처음으로."

유진은 눈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이거도 있어. 너 지갑 얘기 말이야."

현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지갑이었다. 유진의 엄마 지갑.

"내가 이걸 봤을 때 그냥 낡은 거라고만 생각했어. 효율성이 없다고. 근데 너한테는 추억이 담겨있었지. 엄마와의. 그걸 내가 못 봤어. 미안해."

유진은 그 지갑을 받아들였다. 손이 떨렸다.

"그래서 나 결심했어.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너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로. 그리고..."

현우가 테이블 위에 뭔가를 놔다. 작은 상자였다. 유진이 열어보니 두쫂쿠가 들어있었다.

"이것도 너 때문에 샀어. 너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 너가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유진은 웃음과 눈물이 섞여 나왔다.

"현우..."

"그리고 유진아, 나 알았어. 너는 계획이 없을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너야. 그리고 그런 너를 내가 지켜주고 싶어. 너의 방식대로."

유진은 현우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현우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분석이 아닌, 공감으로.

"근데 나도 알았어. 너의 현실성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 너가 없었으면 내가 진짜 많이 헤맸을 거야. 너의 안정감이 나한테 필요해."

현우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너의 감성과 내 현실성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말이야. 우리만의 방식으로."

유진은 현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눈빛이.

우리만의 쫄쫄 쿠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현우는 유진이 건네준 쿠키를 들었다. 그것은 유명한 두쫄쿠가 아니었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갈색 쿠키였지만, 현우의 손에 들려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랐다.

"이거... 뭐예요?"

유진이 밝게 웃으며 설명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쿠키야. 기억나? 지난주에 말이야."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다. 지난주. 그때 유진은 자신에게 베이킹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는 당시 효율성을 이유로 거절했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강태오의 카페 주방을 빌려 혼자 만들었던 것이다.

"혼자 만들었어요?"

"응,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야.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현우는 쿠키를 깨물었다. 겉은 바삭했지만 안은 쫄쫄했다. 두쫄쿠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따뜻했다. 그것은 맛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이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 자체였다.

"맛있어요."

"정말?"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 표정을 보면서 현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유진은 효율성이나 논리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세계에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다음엔 뭘 해볼까?"

현우가 물었다. 그 질문에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그럼... 트렌디한 카페 투어는 어때? 아니면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 맞다! 요즘 뜨는 감성 사진 전시회도 있어!"

현우는 유진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전 같으면 그는 이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유진의 목소리에 담긴 설렘이 더 중요했다.

"다 좋아요."

"정말?"

"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요."

유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강태오가 들어왔다. 그는 현우와 유진의 모습을 보고 한 번 멈췄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 현우님. 잘 지내세요?"

"네, 태오씨.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확신에 찼다. 강태오는 더 이상 자신의 불안감의 대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유진은 이미 자신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유진이 강태오에게 말했다.

"사장님, 이 쿠키 어때요? 현우가 먹어봤대요."

"오, 정말요? 맛있어 보이네요."

강태오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현우는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유진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저녁, 현우와 유진은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걸었다. 유진은 현우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가게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현우는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가? 유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한지 않은가?

"현우, 고마워."

"뭐가요?"

"내 세계에 들어와줘서."

현우는 유진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내 여자친구는 왜 두쑤꾸를 좋아할까

저자: 장우일

출판사: 지혜의서가

발행일: 2026년 05월 04일

전자책 정가: 15,500원

ISBN: 발급 예정

저작권: © 2026 장우일. All rights reserved.

본 도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및 편집 구성은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본 도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초안 작성과 자료 정리를 바탕으로, 저자의 기획·검수·편집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